

- 주요 뉴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4년래 최고치,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전망 등이 반영
 - 미국 지역연은보고(베이지북),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략비축유 방출. 유가 안정이 주요 목적
 - 영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은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및 급격한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1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및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9월 영국의 기록적인 고물가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9%,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에 '08년 6월래 최고치
독일은 높은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9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434.5원, +8.3원) 0.6% 상승, 한국 CDS 상승

		10/19일	10/18일	전일대비			10/19일	10/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695.2	3,720.0	-0.67%	국채 금리 10y	미국	4.13%	4.01%	13bp
	유럽	397.73	399.84	-0.53%		독일	2.38%	2.29%	9bp
	중국	3,044.4	3,081.0	-1.19%		영국	3.88%	3.95%	-7bp
	일본	27,257	27,156	0.37%	CDS 5y	한국	59bp	58bp	1bp
	한국	2,237.4	2,250.0	-0.56%		중국	110bp	108bp	2bp
환율	달러지수	112.87	112.13	0.66%	위험 지표	EMBI+	-	471	-
	유로화	0.9773	0.9858	-0.86%		VIX	30.76	30.50	0.85%
	엔화	149.90	149.26	-0.43%		WTI유	85.55	82.82	3.30%
	위안화	7.2287	7.2023	-0.37%	원자재	구리	331.8	336.2	-1.31%
	원화	1,426.2	1,422.7	-0.25%		금	1,629.4	1,652.2	-1.3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4년래 최고치.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전망 등이 반영

- 10/19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4.13%, +13bp). 2년물 금리 역시 큰 폭 상승(4.56%, +13bp)하며 '07년 이후 최고치
- 주요 지역 연은 총재의 발언이 국채 매도에 일조.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블라드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고 발언. 또한 최종금리는 4.50% 혹은 4.75%에 이를 수 있으며, 내년이 되면 인플레이션 완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슈카리 총재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우위 상황이 여전하며, 이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평가. 다만 내년에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약화되며 연준의 금리인상도 멈출 것으로 기대
- 최근 주택경기 부진 전망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준이 강력한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 향후 연준의 11월 추가 인상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소지(Evercore ISI의 Stan Shipley)
- 한편 이날 CME FedWatch Tool은 11월과 12월에 각각 0.75%p,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0.25%p 인상을 전망. 내년 3월에 최종금리 5.00~5.25%에 이르고, 7월과 12월에는 각각 0.25%p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지역연은보고(베이지북),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

- 다수의 지역에서 완만하게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경제 전망 관련 기업들의 회의적 시각이 확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어렵다고 밝히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신호가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략비축유 방출. 유가 안정이 주요 목적

-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1500만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고, 필요 시 추가 방출도 가능하다고 시사. 또한 정유사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의회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허가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입법도 요구

■ 미국 9월 주택착공, 전월비 감소, 대출금리 상승 등이 주요 원인

- 9월 주택착공은 연환산 143.9만건으로 전월(156.6만건) 및 예상치(147.5만건) 하회. 연준의 금리인상 등이 계속해서 주택건설 활동을 억제하고 있으며, 주택착공의 저점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Amherst Pierpont Securities)

■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10월 및 12월 각각 0.75%p 인상에 나설 필요

- 바슬레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 한편 중립금리 도달 후에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논의해야 하며, 그 시기는 대략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접경지역은 이동제한령

- 푸틴 대통령은 10/20일(목)부터 계엄령이 발효된다고 발표. 계엄령 초안은 여행과 집회를 제한하고 검열을 강화하며 사법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 영란은행 부총재, 금융시장의 패닉은 정치권의 오판에서 비롯

- 컨리프 부총재는 정부의 최고위층 관료들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영란은행은 시장에 개입해야만 했다고 언급. 이번 발언은 글로벌 요인들로 충격이 발생했다는 트러스 총리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평가

■ 영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은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

- 9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비 10.1% 올라 전월(9.9%) 및 예상치(10.0%) 상회. 특히 식품가격이 14.5% 상승률을 기록하여 1980년 4월 이후 최고치.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되면서 영란은행이 보다 강력한 금리인상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은 환율이 아닌 경제 전반을 고려하여 결정

- 구로다 총재는 경제가 취약하기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 과도한 환율 움직임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0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만 및 쿡 이사 강연,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결정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논의, 12월에 이루어질 가능성 - New York Times

(The Fed, staring down two big choices, charts an aggressive path)

- 9월 소비자물가 결과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1월 FOMC에서도 0.75%p의 금리인상 확실히 되고 있으며, 최종금리도 9월 점도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최근 경제 여건은 중고차 가격 하락 및 노동수요 완화와 임금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이 상당. 이에 12월 FOMC에서의 0.75%p 인상을 단정 짓기 어려우며, 금리인상 폭 관련 전망도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 등에 좌우될 소지

■ 유럽의 제조업, 에너지 가격 상승에 위기감 고조 - Financial Times

(Will the energy crisis crush European industry?)

-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으로 유럽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 감축 또는 일시적 생산 중단을 선택. 이는 시장점유율 저하를 초래하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
- 또한 일부 기업은 생산설비를 에너지 가격이 낮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 해외 설비투자는 철회에 수십 년이 소요되기에 정치권은 유럽의 대규모 산업공동화 가능성을 우려
- 역내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 기업의 생산 부진이 현실화되면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 독일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위기 지속 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내년에도 이러한 위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구로다 총재 퇴임 후 매파적으로 선회할 소지 - 블룸버그

(Bond Vigilantes Revive Wagers on a BOJ Hawkish Policy Shift)

- 엔/달러 환율이 1990년대 최고치로 상승하고 달러당 150엔 상회도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퇴임(23년 4/8일) 이후 이차원(異次元) 통화완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
- OIS 시장은 '23년 4월까지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종식을 예상(정책금리는 현재 -0.1%에서 0.125%로 상승).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의 변화를 통해 금리상승 용인이 불가피해질 전망(Akio Kato, Mitsubishi UFJ Kokusai Asset)

■ 주요 신흥국, 1980년대와 같은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제한적 - 블룸버그

(GLOBAL INSIGHT: Sovereign Default Wave? More Like a Trickle)

- 부채증가, 성장둔화, 금리급등 등으로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41개국을 대상으로 12개월 내 부도 확률을 분석한 결과, 10% 이상인 국가는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으로 세계경제의 약 3% 비중을 차지
- 41개국의 평균 채무불이행 확률은 약 10%이나 이는 1980년대 정점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리스크는 일부 경제규모가 작은 취약국에 집중. 1980년대와 같이 주요 신흥국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은 자국통화 표시 부채 비중의 확대, 저축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효과 등에 기인
- 한편, 전염효과가 확대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23년 GDP 가중평균 국가 채무불이행 확률이 1.5%에서 5%로 상승하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의 부도 위험은 40% 이상으로 상승. 다만 이 경우에도 브라질과 폴란드 등은 안정을 유지할 전망

■ 중국의 부동산 시장, 민간업체 채무불이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편 - WSJ

(In China's Property Sector, There Is Nowhere to Hide)

- 정부가 9월 주택판매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CIFI Holdings의 채무불이행에서도 재확인. 해당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체이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
- CIFI Holdings의 경영난은 정부 지원에 비해 단기 부채가 크기 때문. 아울러 주택판매 부진과 주택매입자들이 공급능력에 의문을 갖고 민간개발업체를 회피한 이유도 작용.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문제 해결은 기대난

■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 정부의 주장보다 낮지 않은 편 - 블룸버그

(No, Inflation Is Not Actually Lower Than the Government Says)

■ 이탈리아 신임 정부, 경기침체 우려 속 균형 있는 재정정책이 요구 - Financial Times

(Giorgia Meloni faces economic storm as she prepares to take helm in Italy)

■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의 대만 통합 시도를 촉진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Containing China is Biden's explicit goal)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